



### ‘약선명가’ 시루연의 분주한 설맞이

# “설 주문 쇄도 ... 밤샘작업도 신나요”

떡집기게는 뿌연 수증기를 연신 뿜어내 눈앞을 가린다. 위생복을 착용한 10여명의 일손들은 바쁘게 움직이느라 인공적으로 아랑곳없다.

선물용 상자가 산더미처럼 올라가고, 집간을 비운 배달차량은 질퍽없이 또 주차장을 떠난다. 울어들어 벌써 2주일이 반박돼온 풍경이다.

설을 닮아 앞둔 지난 3일에도 ‘약선명가(藥膳名家)’로 알려진 떡 전문생산업체 (주)시루연(광주시 광산구 신장동)은 이렇게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었다.

다른 떡업체의 제품이 명절에 집중되는 것과는 달리 시루연의 제품은 매년 절과 입학시즌, 봄나들이가 맞물리는 2~5월에 전체 매출 10여억원의 30~40%를 차지할 만큼 선물용으로 인정을 받고 있다.

### 연 매출 10억 ... 업계 두각

설 대목에 소화해야 할 물량은 전체의 10%에 불과하나, 상대적으로 준비기간이 짧아 밤샘작업은 보통 이틀남 정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난 2006년 12월 문을 연 짧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1년만에 1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등 시루연(대표 박홍수·손안상 부부)은 뜨고 있는 업체

다. 시루연은 700여개가 넘는 광주지역 떡업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유는 충분하다. 전통 제조방식에 홍시·녹차·백련초·복분자 등 천연재료를 가미, 60여종의 상품마다 건강기능성을 강조한 ‘약선(藥膳·병을 예방하고 치료를 돕기 위해 먹는 음식)’ 상품은 처음 대하는 소비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 1급 기능장들이 손수 빚어

설에 잘 나가는 삼색떡국을 비롯해 백련초, 영양떡, 녹두깨찰편, 두담단자, 모시잎 송편, 바빔떡, 호박떡 등 시루연의 대표주자들이다.

손안상 대표는 “특별한 날에만 만들거나 사먹는 음식이 아니라 간식으로도 훌륭하고, 특히 바쁜 직장인과 젊은이들이 아무때나 편하게 먹을 수 있도록 날개로 포장한 것도 주효했다”고 말했다.

광주 비아·송정농협에서 수확한 찹쌀과 전남 지역에서 생산되는 천연재료만을 사용, 전문 1급 기능장들의 손을 빌려 정성스레 빚어낸 탓에 소비자들로부터 떡이 아니라 ‘작품’으로까지 입소문이 난 상태다.



손안상(오른쪽) 대표 등 전문 1급 떡기능장들이 광주시 광산구 신장동 본사에서 설수요 상품을 만드느라 바쁜 손길을 놀리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입학·졸업식 선물용도 인기

박홍수 대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소비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상품을 만들어 그동안 빵·과자 등 서양음식에 늘렸던 설음

을 한방에 날려버릴 것”이라고 환하게 웃었다. 현재 광주에 두 곳의 판매점을 운영하고 있는 시루연은 내년부터 전국에 매장을 개설한 데 이어 일본·미국·중국 등 해외시장 개척에도 나서는 등

외연을 넓혀갈 계획이다. /이종태기자 jtleee@kwangju.co.kr

## 주식형펀드 첫 자금 순유출

### 해외 주식형펀드도 4일째 순유출

올 들어 가파른 하향곡선을 그린 국내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해왔던 국내 주식형펀드가 13영업일 만에 처음으로 자금 순유출이 발생했다.

5일 코모닝신한증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펀드 설정액은 지난 1월 현재 73조6천298억원으로 전월보다 307억원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재투자분 413억원을 제외한 순유입 자금은 -106억원으로 추정된다.

국내 주식형펀드에서 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것은 지난달 15일 이후 13영업일 만에 처음으로 그동안 증시 폭락장에서 환매 기회를 놓친 투자자들이 최근 코스피지수가 상승하자 자금을 인출한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해외 주식형펀드도 설정액 54조2천101억원으로 전월에 비해 153억원 감소해 사흘째 자금 순유출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미래에셋자산투자신행4 C-A’(88억원), ‘미래에셋인더펜던트주식형K-2 Class’(64억원), ‘PCA 베스트그로쓰주식-4’(40억원) 등 펀드들이 자금유입을 주도했고, 해외펀드는 ‘미래에셋차이나스물론주식 2(CLASS-A)’(176억원), ‘슈로더머지펀드스호환종류-자(A)종류(I)’(94억원) 등에 자금이 몰렸다. /연합뉴스

## 1월 수입차 등록 5,304대

### 월간 사상 최대치

올해 1월 수입차 등록대수가 월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는 올해 1월 수입차 신규등록대수가 지난해 1월(4천365대)보다 21.5% 증가한 5천304대로 집계됐을 월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5일 밝혔다.

브랜드별 등록대수는 혼다가 901대로 수위를 차지했고 이어 메르세데스-벤츠(767대), BMW(754대), 폴크스바겐(460대)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베스트셀링 모델은 355대가 등록된 혼다 아코르드 3.5가 차지했고 BMW528(344대), 메르세데스-벤츠 C 200(270대)가 뒤를 이었다.

배기량별 등록대수는 2천cc 미만은 1천579대(29.8%), 2천~3천cc 미만 1천836대(34.6%), 3천~4천cc 미만 1천453대(27.4%), 4천cc 이상 436대(8.2%)로 나타났다.

법인구매의 지역별 등록 현황은 서울 1천282대(38.0%), 경남 1천264대(37.4%), 경기 518대(15.3%) 순이었으며, 개인구매는 경기 671대(34.8%), 서울 667대(34.6%), 부산 99대(5.1%) 순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 떡매 치고 인절미 먹고

시간을 보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점장 구수희)은 5일 설날을 앞두고 9층 식당가에서 떡 매치기 체험행사를 열었다. 이날 고객들은 떡 매치기를 직접 체험해보고 인절미를 만들어 먹는 등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롯데백화점광주점 제공)

## 최고가 아파트 보유세만 1억

### 분양가 52억 서울 독점 주상복합 입주자

최고가 아파트로 등극한 서울 독점 주상복합아파트와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입주자들은 한 해 보유세 부담이 얼마나 될까. 이들 아파트는 40억~50억원대에 이르는 높은 분양가만큼이나 세금 부담도 어마어마할 전망이다.

특히 이 아파트의 입주자가 시작되는 2011년(예정)에는 재산세 과표 적용비율이 현재 55%에서 70%로, 종합부동산세 과표 적용비율은 올해 90%에서 100%로 각각 높아지기 때문에 한 채만 갖고 있어도 해마다 수천만원이 넘는 세 부담을 져야 한다.

5일 김중필 세무사에 따르면 분양가 총액이 57억6천여만원으로 가장 비싼 부산 해운대 아이파크 슈퍼 펜트하우스(423㎡)의 경우 입주시점인 2011년에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해 총 1억1천580

여만원을 내야 한다. 3.3㎡당 분양가가 평균 4천374만원인 서울 독점 한화 ‘갤러리아 포레’ 주상복합아파트 377㎡(분양가 52억4천200만원)도 2011년 입주때 1억원이 넘는 1억 340여만원을 보유세로 내야 한다.

또 3.3㎡당 분양가가 평균 4천259만원으로 분양가가 최고 45억9천400여만원인 독점 ‘한솔 e편한세상’ 331㎡도 입주 첫 해 8천780여만원의 보유세가 부과될 전망이다.

이들 금액은 웬만한 기업의 차·부담금 연봉 수준이거나 이보다 높은 것이어서 일반 샐러리맨이 이런 주택을 구입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독점 주상복합아파트 가운데 가장 싼 것을 구입해도 보유세 부담은 만만치 않다. /연합뉴스

## 국내 7개銀 서브프라임 손실 5억6천만달러

금융감독원은 “국내 7개 은행의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비우량주택담보대출) 관련 손실이 지난해 12월말 기준 5억6천300만달러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7개 국내은행의 최초 투자금액이 6억 8천250만달러였음을 감안하면 현재 손실률이 82.4%에 달한다.

은행별 최초 투자금액은 우리은행이 4억9천100만달러, 농협이 1억4천400만달러로 전체 은행 투자분의 91%를 차지했다. /연합뉴스

우리은행과 농협의 손실 규모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4억4천500만달러(손실률 90.6%), 1억700만달러(손실률 78.7%)로 집계됐으며 이는 지난해 모두 상각처리됐다. 이외에 외환·신한·산림·부산·대구은행도 서브프라임모기지 관련 채권에 투자는 했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원 고위관계자는 “주요 금융사가 투자손실을 지난해에 이미 상각해 버려 향후 발생할 직접 손실 규모는 미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재계, 한미 FTA 국회 비준 촉구

### 전경련, 통외통위 간사 초청 대책 논의

재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비준동의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정치권에 재차 촉구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양당 간사인 이화영(대통합민주신당), 진 영(한나라당) 의원 등을 초청한 가운데 국제협력위원회를 열고 FTA 비준 대책 등을 논의했다.

김동진 위원장은 “미국과의 FTA는

경제 선진화, 경쟁력 강화 등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향후 총선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이번에 처리되지 못하면 장기 표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회의 참석자들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지체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한미 FTA의 조기 비준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연합뉴스

이와 관련,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대통합민주신당측 간사인 이화영 의원은 이날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와 관련, “4월 총선 직후 18대 국회가 꾸러지기 전인 ‘레임덕 세션’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체 의원 가운데 200명 가량이 한미 FTA에 대해 찬성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표결할 경우 비준동의안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면서 “하지만 현재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지난해 세금 14조 더 건넸다

지난해 당초 예산보다 국세가 14조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최종 집계됐다. 특히 부동산 거래 증가와 집값 상승 등의 영향으로 양도세와 종부세 징수 규모가 크게 늘었다.

재정경제부는 5일 감사원 양인식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7회계연도 총세입·총부출 마감했다고 밝혔다. 총세입·총부출은 정부의 세입·세출 내역을 총괄적으로 기록한 회계장부를 말한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일반회계 부문 세입은 예산액 156조5천억원보다 14조7천

억원(9.4%) 많은 171조2천억원이었다. 국세 수입이 예산(141조6천억원) 대비 13조5천8천억원(9.7%) 초과 징수됐고, 세외 수입도 9천억원 정도 늘었다. 이 같은 세수 호조에 따라 국제 발행은 당초 계획보다 1조3천억원 정도 줄었다.

재경부는 2007년 1월 1일 세계 경제를 앞두고 2006년말 부동산거래가 크게 늘었고,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과표 적용률도 상향 조정되면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예상보다 많이 걷힌 것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

## 함께 일합시다

업 체 명	모 집 분 야	자격 및 경력	연봉(만원)	마감일	연락처
☎도원	파리버케트 MD매너저 모집(광주)	초대졸/경력무관	1800~2000	02/12	062-381-8201
사프정밀	금형부품 가공원 모집	고졸/경력무관	2000~2200	02/16	062-956-4900
☎서원건설	자금, 회계, 결산 담당 직원 모집	고졸/경력3년	2400~2600	02/16	062-512-8873
☎벤델건설	관리원 (건설공무, 디자인) 모집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17	010-6677-4972
☎퓨처사이버	웹디자인,쇼핑몰 기획 마케팅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0	02-1544-6005
☎익스피디아티스코리아	광주사무소 항공/해운 수입업무 사무직사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2	062-373-1150
울림	맥퀀디자이너나 모집 (Quark 편집 가능자)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2/23	062-234-8502
☎휴로넷	[고정급150만원]SK텔레콤[광주]114상담원모집	초대졸/경력무관	2400~2600	02/23	011-299-7000
호남대학교 학교기업 HIMEC	(국비지원)일본 IT취업전체 연수생모집	초대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5	062-380-8400
☎하우	사무보조, 경리, 문서작성 등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2/28	062-350-2691
☎에스디엠	생산직, 지재관리 신입사원모집	고졸/경력무관	1400~1600	02/29	062-974-0085
세계식품광주지점	머거분, 블루다이어몬드 및 기타 안주류 도매영업	고졸/경력1년	회사내규	02/29	011-554-9067
☎태창공업	A/S 및 설비관리원 직원모집(전기/전기공사 산업기사)	고졸/경력무관	회사내규	02/29	062-956-2413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 올해 세무사 630명 뽑는다

### 작년보다 10% 줄어

국세청은 올해 치르는 제 45회 세무사자격시험의 최소 합격인원을 지난해보다 10%(70명) 정도 감소한 630명으로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10년 동안 세무사 증가율(9.2%)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1.2%)과 납세인원 증가율(2.4%)보다 많이 높았고 세무사자격시험에 합격하고서도 개업을 하지 못하는 인원이 연평균 36.8%에 달하고 있어 올해 최소합격인원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무사 수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세무사 1인당 복식기장증수가 10년 전 62건에서 최근 47건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등 세무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넘치는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올해 1차 시험은 4월 20일, 2차 시험은 7월 13일 각각 실시할 예정이고 응시원서 접수는 인터넷(www.nts.go.kr, taxstudy.nts.go.kr) 및 서면접수(우편접수 포함) 모두 가능하지만 인터넷을 이용하면 더 편리하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연합뉴스